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내촌중 · 관인중 · 삼성중 합동보고회

경기도교육청 지정 학교정책 연구시범학교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방과후학교 발표회 및 특별초청강연회가 11월14일 내촌중학교 3층 도서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합동보고회는 관내 중학교 교감 및 교사와 조문창 교육위원, 김봉길 포천교육청 학무과장, 박선출 장학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문창 교육위원의 '2007학년도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내촌중학교, 관인중학교, 삼성중학교 순으로 합동보고회가 진행됐다.

조문창 교육위원은 특강에 앞서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문제가 일반 고등학교 원서마감일 11월 20일까지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유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촌중학교는 '특성화 프로그램 적용으로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

기' 관인중학교는 '다양한 특성화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통한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방안', 삼성중학교는 '특성화 영어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3개 학교 합동보고회를 지켜 본 김봉길 포천교육청 학무과장은 "이번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해당 장학사의 지도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선행연구가 없고 한 문장이 9줄을 넘고 있어 내용이 정확하게 명료해야 할 시범학교 보고회로서는 민망한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하고 "예산지원이 중단돼도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 관내 돌아오는 농촌학교 선정 운영학교는 2003년도에 유암초, 화현초, 2004년도에 창수초, 2006년도에 금주초, 보강초, 옥석초, 내촌중, 삼성중, 관인중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교육청 지정 학교정책 연구시범학교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방과후학교 발표회 및 특별초청강연회가 11월14일 내촌중학교 3층 도서실에서 개최됐다.

포천시 모의의회 경연 대회

11월13일 포천시 모의의회 경연 대회가 열렸다. 영북초 선단초 등 7개의 학교에서 참가했다.

이 학교들 모두 경쟁한 실력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우수 선단초의 실력은 각 학교의 담당 선생님은 물론 학생들까지 놀라게 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자신의 꿈이 의장 또는 시의원이란 내년에 도전한다고 하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영북초 각홀 축제

영북초 각홀 축제가 11월14일에 개최됐다. 바자회, 먹거리, 재능 발표 등을 실시했다.

각 학년에서 악기 합주, 영어노래 등과 함께 특기적성으로 실력을 키운 학생들의 발표 전시회도 마련됐다. 특히 4.5.6학년은 운동장에서 팀을 결성해 제기차기, 닭싸움 등 여러 놀이 마당을 즐기며 단합을 키우고 친구간에 우정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어머니들이 준비한 맛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며 아이들 이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들은 뿌듯했다고 한다.



김 에 리
학생기자·영북초 5년

나도 시의원! 새 시대 주역들 열띤 토론

포천시의회, 제1회 초등학교모의의회 경연대회

포천시의회(의장 이강림)는 11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고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관내 선단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 초등학교 7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포천시의 경전철 사업추진 방안, 학교내 에너지절약 추진 및 실천방안 등 학교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경연을 펼친 그간의 같고 닮은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제각기 자신의 눈높이에서 사회문제를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경연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오늘 모의의회를 통해 의회가 하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됐다"며 "다수결의 원리와 의사결정의 원리 등 의회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대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어린이들이 사회 참여의식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해 가는 민주주의적 사고를 배워 미래를 선도할 참다운 인재로 성장하길" 당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의회는 11월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선단초등학교 태권도 단체 우승 제13회 포천교육장배 제11회 협회 정기 태권도대회에서 선단초등학교 남자부 팀이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 선수상에는 서광열 선수가 차지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선단초등학교 학생들이 거둔 성적은 다음과 같다. 01위(금메달) ▶이영한(주니어편) ▶박상현(리니어편) ▶서광열(푸니어편) ▶김준영(반편) ▶이규설(페더급) ▶신준호(웰터급) 02위(은메달) ▶안시현(미니어급) 03위(동메달) ▶라성우(미니어급) ▶전종혁(미니어급) ▶장원진(리니어편) ▶최지수(편) ▶유지환(편)

《 함께 공부해요 》

심술지요(心術之要) ④

出門如見大賓 하며 使民如承大祭 하고
己所不欲을 勿施於人 이니라.

"집의 문을 나가서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리는 큰 제사를 받듯 하듯 하며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귀한 손님을 대할 때에는 공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공경한다. 종묘의 제향같은 것은 더욱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한다. 집을 나가서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려는 것은 허세를 조심하여 공경히 하려는 것이고 백성

부르기를 큰제사를 받듯 하려는 것은 일을 공경하라는 뜻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인애의 마음이며 또한 남을 공경하는 것이다.



양 주 승
본지 자원위원/교편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2. <도량형> : (Weights and Measures)
* <조 언> : '도량형'의 단위는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국제화통일이 되지 않아, 국가간 교류나 언어소통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 전래되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쓰여지고 있는 몇 가지는 비교하여 소개한다.

- * 길이 : 1 foot(인치) = 30.5 cm(센티미터) 10 feet(피트)
- * 넓이 : 1 평방미터(스퀘어미터) = 10.8 square feet(스퀘어피트)
- * 부피 : 1 cubic foot(큐빅피트) = 0.03 입방미터(큐빅미터) 1 gallon(원갤런) = 3.8 리터(liter)
- * 무게 : 1 kg = 2.2 (파운드) = 35.3 Ounce(아운스) 1 L/B(파운드) = 454g (1 근=600g)
- * 거리 : 1 mile(마일) = 지상 1.6 km(키로미터) 1 Nautical(노리컬마일) = 해상 1.85 km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2008년에도 방과후학교의 메카는 포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교장 협의회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2007년 11월13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최초의 초·중·고교장 협의회인 '초·중·고교장 협의회'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최초의 초·중·고교장 협의회인 '초·중·고교장 협의회'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최길용 포천교육장은 "올해 방과후학교의 이 같은 혁혁한 성과는 대응투자기관인 포천시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교육수요자를 대하는 새로운 마인드 함양과 신뢰받는 학교교육은 방과후학교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길 학무과장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노력을 기울인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취한 목표를 지켜내는 것이며, 2008년에도 교장선생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2008학년도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대응투자 계

획도 함께 발표했는데, 초·중·고교가 함께 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프로그램을 많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았다.

포천교육청은 금년에 국고지원과 지자체(포천시) 지원금 등 총 13여억원의 예산으로 파주영어나마을 체험학습을 비롯하여, 초·중·고 연계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바이에슬론 종목의 전국제패, 7개 교사동아리 지원을 통한 사제동행 실현, 국가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을 목표로 한 늘푸른 국악교실 운영, 장차 포천을 로봇의 고향으로 만들 과학로봇교실 운영 등 16개 프로그램을 관내 50여 학교에 보급하여 명실상부한 방과후학교의 메카로 성장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포천교육청은 2007년 11월13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의정부시에 중국어 전문교육기관

대진대 공자아카데미 11월28일 開院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11월 28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번지 센트럴타워 6층 617호/618호에서 공자아카데미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언어와 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 설립하고 있는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국내에는 현재까지 12개가 설립되었다.

대진대가 지난 5월 중국하얼빈사범대학과 설립의향을 체결하고, 7월 중국국가관과 설립협정 체결을 마쳤으며, 그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고 공자아카데미 설립 협약에 따라, 하얼빈사범대학에서 파견된 중국측 원장과 2명의 중국어 교수가 직접 공자아카데미의 중국어 강의를 담당한다.

대진대 관계자는 이번 개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전수 받아 보다 수준 높은 수준의 중국어와 문화에 대한 보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진대학교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중국전문인재'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중국어 교육과 문화 보급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협력대학인 하얼빈사범대학은 표준 중국어 교육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의 사범대학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원되는 대진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 전철 역 앞의 변화한 상업지역에 자리함으로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사무실과 강의실, 영수증을 볼 수 있는 시설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진대공자아카데미는 학생과 일반인들의 중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지역의 초·중·고 중국어 교사의 중국 현지 무료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진대 관계자는 이번 개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전수 받아 보다 수준 높은 수준의 중국어와 문화에 대한 보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학교는 11월28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번지 센트럴타워 6층 617호/618호에서 공자아카데미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자유기고

살기 좋은 포천

올 봄에 우리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오래 되고 작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다.

우리가 쓰던 물건도 다 들어오지 못해서 많은 물건들을 버려야만 했던 작은 아파트에 얼마도 나도 들어오기 싫었다. 더구나 이 아파트는 수도물도 잘 나오지 않아서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수도물을 물을 때때로 사용하는 전기 모터 소리가 수도물 소리보다도 훨씬 크게 들릴 정도여서 머리가 아파도 나고 우리는 모터의 전기 코드를 빼고 욕조에 수도물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투덜거리는 나와 엄마를 보고 아빠께서는

"여기 포천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인심이 좋아서 아이 교육시키는데 좋다고 하니, 우리 딱 일 년만 이 집에서 살아보고 포천이 싫으면 다시 먼저 살던 곳으로 이사하고 좋으면 이 근처의 다른 집으로 이사합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후, 엄마의 기분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니? 지연아, 내가 태어난 후로 한 달에 수도요금 팔천 원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먼저 살던 곳에서는 만 오천 원 내지 이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세상에 절반도 안 나왔네" 하시며 기뻐하셨다.

신인 난 엄마께서는 그 후로 수도물을 더욱더 절약하신다. 양변기 뽕에는 빨간 벽돌이 들어가 있고, 날마다 하던 세탁도 잔뜩 밀려서 한꺼번에 하신다. 어찌나 졸졸졸 흐르는 수도물이니 마 틀어 놓고 양치질을 하면 불효령이 떨어진다. 갑자기 절약을 생활화한 엄마는 수도물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지연아, 약수터 가자. 산 좋기 좋은 포천에서 약수물 떠다 마시면 운동해서 좋고, 좋은 물 마셔서 좋고 정수기 안 쓰니까 돈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냐?" 하시더니 정수기도 치워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공기 청정기도 비닐에 넣어서 치우시며 "포천의 이 맑은 공기 속에서

공기 청정기를 틀어 놓아 봤자 넓은 바닷물에 수도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지 뭐." 하셨다. 줄어드는 전기 요금에 신이 난 엄마는 김치냉장고 코드까지도 빼 버리셨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로 엄마께서는 은행에 가서서 공과금을 내고 오신 날이면 내 통장에 저금하라고 하시며 4만원을 주신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에서 절약한 돈이라고 하신다. 작은 집이지만 절약하여 내 통장을 살찌게 하고, 미래를 위하여 전기와 물을 아낄 수 있는 우리 집이 참 좋고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가 필요 없는 이곳 포천이 정말 좋다.

나도 모르게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특목 전기 스위치를 끄고, 다른 사람이 손 씻고 틀어 놓고 간 수도꼭지를 보면 깜짝 놀라 잠깐씩 되는 것을 보니 자꾸만 엄마를 닮아 가는 것은 아닐까?



이 지 연
학생기자·포천초 4년